

金景善의 『燕轅直指』 考察

朴 智 鮮*

目 次

- | | |
|------------------|---------------|
| I. 緒 論 | 1. 小中華 意識의 轉換 |
| II. 異本에 대한 考察 | 2. 利用厚生의 繼承 |
| III. 金景善의 生涯 | 3. 天主教에 대한 見解 |
| IV. 『燕轅直指』의 內容研究 | V. 結 論 |

I. 緒 論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燕轅直指』는 金景善(字:汝行, 1788 정조 12년 - 1853 철종 4년)의 연행록이다. 金景善은 冬至使兼謝恩使의 正使 徐耕輔의 書狀官이 되어 1832년 10월, 한양을 떠나 북경을 거쳐 1833년 4월에 돌아온다. 이때의 연행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 바로 19세기 연행록을 대표한다 할 수 있는 『燕轅直指』이다.

燕行錄¹⁾은 조선후기의 사행기록을 총칭하는 것인데, 그 시기는 1637년(仁祖

* 慶熙大學校 講師

- 1) 연행록은 성균관 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 1960년 『연행록선집』 상, 하권을 영인 발행하였다. 상권에는 11본의 연행록이 수록되었고, 하권에는 20본의 연행록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1967년 『연행록선집』을 11책으로 국역하였다. 수록된 연행록은 모두 20본이다. 영인본과 국역된 연행록의

15년)이후 朝鮮朝 말에 이르는 250여 년이다. 청나라와 정식 국교가 성립된 이후 정기적인 사행이 년 2회였으므로,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파견된 사절단은 500회에 이른다. 이러한 지속적인 대청 외교의 결과, 연행록도 거듭 지어졌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연행록만도 65여종에 이르고 있다.²⁾ 현존하는 연행록 중 문학사적 의의가 인정되는 작품은 다음과 같다.

『燕行日記』: 숙종 38년 (1712) 金昌業의 燕行錄.

『湛軒日記』: 영조 41년 (1765) 洪大容의 燕行錄.

『熱河日記』: 정조 4년 (1780) 朴趾源의 燕行錄.

『燕轅直指』: 순조 32년 (1832) 金景善의 燕行錄.³⁾

이 밖에 李德懋(1741-1793)의 『入燕記』와 徐有聞(1762-?)의 『무오연행록』⁴⁾이 논의되기도 하나 그 방대한 양과 질적인 성과의 측면에서 본다면 단연코 위의 4종이 연행록 연구의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들 4종의 연행록은 후대 연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지침서 역할을 했으며, 여타 연행록의 저본이 되기도 했다.⁵⁾

이 중 『燕轅直指』는 金景善이 書狀官⁶⁾의 신분으로 사행했던 만큼, 조정에

수록 내용은 중복되는 것도 있으나 각각 편차가 있다.

- 2) 『연행록선집』 I, 5면, 「연행록선집 해제」, 황원구, 고전국역총서 95. “일찌기 中村榮孝「靑丘學總」1집(1930)에서 「事大紀行」에서 「朝天錄」, 「燕行錄」을 소개하였다. 여기에서만 보아도 「조천록」이 40여 종, 「연행록」이 65여종이나 된다고 밝힌바 있다. 이 밖의 전존이 확실한 것을 합하면 「연행록」만도 1백 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글본으로 되어 있는 것도 2, 3종이나 된다. 등록은 대체로 奎章閣圖書 중에 소장되어 있으나, 개인의 「燕行錄」은 刊本 또는 寫本으로 전해지기도 한다. 단행본인 경우도 있지만 저자의 문집 속에 수록되어 전해지기도 한다.”
- 3) 『燕轅直指』, 燕轅直指 序, 金景善.
- 4) 『무오연행록』은 서유문이 1798면 서장관의 신분으로 연행한 것을 기록한 것으로, 홍대용의 「올병연행록」과 함께 국문본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金東旭, 「무오연행록에 대한 小考」, 『여행과 체험의 문학』, 292-300면 참고.
- 5) 黃元九, 「燕行錄의 세계」, 『여행과 체험의 문학』, 56면.
- 6) 「留館錄 下」, 『燕轅直指』, 권지 5, 1833년 2월 3일 조.“무릇 館中에 관한 일은 으레 다 서장관이 주관한다. 나는 法司, 訟官의 임무를 겸한 터라, 더러는 좋은 말로 개유시키기도 하고 더러는 매를 때려 주의시키기도 하면서 좌우로 수응하느라 나도 모르게 심신이 피곤하였다. 들으니, 이런 폐단은 옛부터 있었다고 한

제출했던 牒錄 기초하였다고 보아 진다. 牒錄은 대체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간단한 기록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작성된 사행록과는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크게 다른 점이 있다. 그러나 『燕轅直指』는 서장관의 기록이지만 개인이 정서와 의식세계가 기록된 문학적 기록으로 가치가 인정된다. 『燕轅直指』는 사페한 날로부터 귀환하기까지의 路程, 北京 滯留, 聞見, 學的인 交流 등에 이르기까지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기록하여 작자의 고증적 태도가 돋보이는 연행록이다.

한편, 『老稼齋燕行日記』, 『湛軒燕記』, 『熱河日記』의 작가들은 모두 子弟軍官이란 비공식 자격으로 연행에 참여했다.⁷⁾ 이들 연행록 중에서 『湛軒燕記』와 『熱河日記』는 18세기 실학의 배경에 연구자들의 관심이 주목되면서 그 연구에 일가를 이루었다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연행록에 연구는 불모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金景善의 『燕轅直指』도 마찬가지여서 작자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작품의 내용도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형편이다.

본고는 이런 상황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만큼, 우선 『燕轅直指』의 書誌의 문제와 金景善의 生涯를 다루고 나서 『燕轅直指』의 內容 研究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異本에 대한 考察

燕行錄 가운데 조정에 보고하는 牒錄은 대체로 규장각 도서 중에 소장되어 있지만, 개인의 연행록은 刊本 또는 寫本으로 전해진다. 단행본인 경우도 있지만, 저자의 문집 속에 수록되어 전하기도 한다.⁸⁾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燕轅直指』는 단행본으로 전하며, 현존하는 연행록 중에서 양적으로 가장 방

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서장관은 使行에 있어서 行臺監察의 임무 이외에, 使行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여 그 見聞錄을 조정에 바치기 위한 牒錄 작성의 임무가 있었다.

- 7) 金昌業은 正使인 백씨 金昌集의 子弟軍官의 신분이었으며, 洪大容은 서장관인 삼촌 洪櫓의 자제군관으로 연행하였으며, 朴趾源도 정사인 죽형 朴明源의 자제군관이었다.

- 8) 황원구, 『연행록선집해제』, 『연행록선집 I』, 민족문화추진위원회, 1976.

대하다.

필자가 조사한 『燕轅直指』 異本은 다음과 같다.

奎章閣本	: 6券 6冊
國立圖書館 A本	: 6券 6冊
國立圖書館 B本	: 4券 4冊
藏書閣本	: 6券 6冊

『燕轅直指』는 모두 4질의 異本이 전한다. 각 이본들은 규장각본 6권 6책, 국립도서관 A본 6권 6책, 장서각본 6권 6책은 그 내용과 체제에 있어 큰 편차가 없으며, 모두 필사본이다. 그 필사체의 글씨체를 보아서도 동일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도서관 B본 4권 4책을, 국립도서관 A본 6권 6책과 비교하였을 때 4권 4책은 6권 6책의 축약본임을 알 수 있다. 축약부분은 6권 6책의 券之 1의 序와 「出疆錄」 11월 <瀋陽以後沿路所見>부분이 제외되었으며, 6권 6책의 券之 4의 유관록 부분이 제외되어 있다. 또한 4권 4책에는 “燕岩山房藏”이라는 기록이 있어 주목된다. 燕岩山房에 소장되었던 이본임은 확실하나, 필사자가 연암산방과 관계가 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燕轅直指』는 규장각본 6권 6책을 번역한 『연행록 선집』 X, XI로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간행된 국역본이다.

이상으로 미루어 우리는 연행록 『燕轅直指』가 여러 이본으로 필사되어 많은 독자에게 읽혀 졌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19세기에도 연행록은 여전히 대중적 인기가 있었던 것이다.

Ⅲ. 金景善의 生涯

『燕轅直指』의 작가 金景善은 遺稿集이 전하지 않고, 직계 가족의 문집 역시 전하지 않아 그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실지이다. 『燕轅直指』의 기록에 의하면 筆談錄⁹⁾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 역시 지금까지는 찾을 수가 없

9) 「출강록」, 『연원지지』, 1832년 11월 30일 조. “밤에 심양 太學교수의 아들 李功

었다. 여기서는 「燕輶直指 解題」¹⁰⁾에서 밝혀진 것과 淸風 金氏 世譜¹¹⁾와 왕조 실록¹²⁾의 해당 자료에 근거하여 그의 생애를 고찰하고자 한다.

金景善은 1788년(정조 12년) 順安縣監¹³⁾ 을 지낸 金基豐의 아들로 태어났다. 金景善은 43세 되는 해인, 1830년(순조 30년) 文科에 급제한다. 그는 이후 순탄한 관직 생활을 계속하여, 司諫院, 弘文館을 거쳐 成均館 大司成, 1839년(헌종 5년)이조참의, 1843년(헌종 9년) 전라도 관찰사, 都承旨, 大司憲, 홍문관, 예문관의 提學, 經筵日講官으로 재임하면서 『純宗大王追上尊號樂章』을 찬술하였다. 나중에 判義禁府事에 이르렀다.

金景善은 1832년 司憲府 執義로 있을때 서장관으로 연행하는데, 이 때의 체험을 『燕輶直指』를 저술하였다. 金景善이 연행을 할 때의 나이는 45세로 연행에서 順安을 지나며 “이 고을은 곧 先考가 고을 살이를 하던 곳인데, 儒鄕과 여러 사람들이 보러 와서 한상 차려 대접하기에...”¹⁴⁾라는 기록으로 보아, 이 때는 이미 부친 金기풍이 작고했음을 알 수 있다. 대다수 연행록의 저자들이 떠나는 고향에 家書를 부치는 일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金景善은 “지나가는 파발을 통하여 집에 편지를 부치고, 또 편지를 써서 아전을 통해 부쳤다”¹⁵⁾는 家書를 부치는 기록이 가장 빈번히 나타난다.

金景善은 대동법의 시행으로 유명한 金堉의 후손으로 老論系 가문이었다. 顯宗때 병조 판서를 지낸 金佐明과 右相을 지낸 淸城 府院君 金錫胄가 그의 傍祖가 된다. 또 그의 아들 金益文은 1837년 司馬試에 합격하고, 여러 벼슬을 거쳐 慶州留守, 禮曹判書, 右參贊 등을 역임하였다. 한말에 외무대신을 지낸 金允植은 그의 三從孫이 된다.

金景善의 생애를 연대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尤이 보러 왔기에 더불어 筆談을 하였다. (필담록에 나타나 있다.)”

10) 이이화, <燕輶直指 解題>, 고전국역총서 104, 연행록선집 X, 1977.

11) <萬姓大東譜 上編>, 신한서림, 1972. <淸風 金氏世譜> : (4573), 金種厚(朝鮮) 編 4券 2冊, 木版本. <淸風 金氏永思錄>, (朝鮮) 청풍김씨보소편, 신활자본 46張 跋 : 丁巳(1857) 金益文, 國(한-57-가268).

12) 純祖實錄, 憲宗實錄, 哲宗實錄.

13) 정조실록 권지 40, 1818년 甲寅 6월 順安 縣監이 되다.

14) 「출강록」, 『연원직지』, 권지 1, 12월 2일조, 『연행록 선집』 X, 40면.

15) 「출강록」, 『燕輶直指』, 권지1, 11월 1일 조. “因過撥付家書又裁家書付.”

1788년 정조 12년(출생 1세)	金基豐의 子
1794년 정조 18년	아버지 김기풍 順安 縣監 ¹⁶⁾ 으로 임명됨
1830년 순조 30년(43세)	문과 급제
1831년 순조 31년	장인 李義甲 禮曹判書로 임명됨
1832년 순조 32년(45세)	사헌부 집의로 청나라에 동지사겸 사은사 여행 의 서장관이 됨.
1839년 헌종 5년(52세)	이조참의
1841년 헌종 7년(54세)	성균관 대사성
1843년 헌종 9년(56세)	전라도 관찰사
1850년 철종 원년(63세)	議政府 右參贊
1857년 철종 8년	『純宗大王 追上尊號 樂章』 찬술 1책 2장 정헌대 부행통양위대호군경경원일강관신(金景善 제진) 김도협묘비 김기풍찬, 金景善서 김성제묘비, 김기풍찬, 金景善서 判義禁府事
1853년 철종 4년(66세)	沒

본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金景善이 찬술한 작품으로 『純宗大王追上尊號樂章』¹⁷⁾을 확인하였고, 또한 『朝鮮 淸州 牧使 贈司僕寺正 金公聖梓之墓』¹⁸⁾와 『朝鮮 尙州 牧使 金公道浹之墓』¹⁹⁾에 쓰여진 金景善의 글씨를 발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樂章²⁰⁾은 역대의 왕조들의 개국의 위업을 찬양하는 국가적인

16) 『正宗大王實錄』, 권지 46, 정조 18년 甲寅 6月.

17) 강만길 : 「순조실록 해제」, 『순조실록』, 신홍인쇄, 1991. “본래 『순종실록』으로 명명되었으나 철종 8년(1857년)에 순조로 추존됨으로써 『순조실록』이 되었다.” 『純宗大王追上尊號樂章』의 찬술 시점에 대해서는 김경선이 1853년(철종 4년)에 죽었다는 생애로 보아 찬술 시기에 착오가 있다. 앞으로 찬술시기 문제는 고찰이 요구되는 바이다.

18) 金聖梓墓誌名, 金景善 書, 金基豐 撰, 國立圖書館本, 古弟15354號 1冊, 朝52-70. <朝鮮 淸州 牧使 贈司僕寺正 金公聖梓之墓>. 묘지명의 내용은 김경선 고조부가 되는 김성재의 청렴한 삶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漢湖 金元行과 硯泉 宋明欽과 道義로 사림을 돈독히 하였다.”는 내용으로 미호 김원행을 중심으로한 노론계 학통과 조선 후기 연행록과 김경선의 연원지자와의 전통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金聖梓, 金道浹의 묘지명 前面의 글씨는 “前面 集 蘇軾 書”라는 글로써 소동파의 글씨를 모아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19) 金道浹墓誌名, 金景善 書, 金基豐 撰, 國立圖書館本, 古弟 15355號 1冊, 朝52-69. 「朝鮮 尙州 牧使 金公道浹之墓」.

20) 「樂章」, 『한국문학의 이해』, 김홍규, 민음사, 1986. “樂章은 역대의 왕조들의 개국의 위업을 찬양하고 帝王의 덕을 기리며 천하의 태평을 구가하는 儀式樂 및

사업을 노래한 것으로 작가의 개인적인 정서를 읽어 가기는 어려운 작품이다. 그러나 조선 개국초의 악장을 살펴전데 그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정치권의 중심 인물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김경선의 제도권에서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직까지 국문학계에서는 조선조 악장은 왕조가 안정적으로 정립이 되면서 그 창작은 일단락이 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純宗大王追上尊號樂章」의 출현으로, 악장 창작의 시기를 왕조 개국과 관련하여, 한정적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왕의 위업을 찬양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19세기가 지어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純宗大王追上尊號樂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純宗大王을 純祖大王으로 尊號를 追上하실 때의 奏樂歌詞 於皇曲, 오 寧考께서는 지극하신 德과 純을 兼備하시고 勤儉하심이 夏朝禹임금을 능가하시며 聖스럽고 영감하심이 堯임금에 이르고 臣下의 直言을 들어 잊지 아니하시며 깊은 仁과 두터운 은혜를 베푸셔서 시절 알맞은 비를 오게 하시고 아무 탈 없이 이제에 이르러 하늘이 도우심으로써 나라가 발전하고 祖上을 기리는 孝가 빛나고 尊親의례가 크시며 때로는 악기를 익히고 노래를 이루기도 하셨으니 당신께서 퍼내신 책이 빛나기 짝이 없어 넓고 크게 後世에 傳來되어 나라를 밝히고 도우심이 끝이 없었다.

正憲大夫 行職 龍揚衛大護軍兼 經筵日講官 金景善 製 進.²¹⁾

순종이 순조로 尊號를 追上げた 시기는 哲宗 8년 (1857년)이다.²²⁾ 승하하고 난 후 23년이 지나서이다. 악장의 내용은 순조의 위업을 찬양한 내용으로 전형적인 악장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宴樂을 위하여 필요로 하였다. 악장에는 한시로 된 것과, 국문으로 토를 단 것과 국문시기도 있다. 언어와 형태에 있어 다양한 양상의 작품이나 악장의 기본 속성이 왕조의 존엄성을 예찬하고 숭고한 정치 이상을 펴는 교화적인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으로 한 갈래로 인정하는 것이다.”

21) 金景善: 純宗大王追上尊號樂章 (全), 藏書閣本 (2-2827), 丁酉字版 (哲宗 4: 1853) 1冊 2張. 純祖追上尊號樂章, 於皇曲 “於皇寧考 之德之純 禹克勤儉 堯乃聖神 永言不忘 深仁厚澤 時雨旣化 虛雲無跡 式至于今 天休用申 孝光追先 禮大尊親 練弦登歌 寶冊有煌 洋洋陟降 啓佑無疆 於皇一章十六句 正憲大夫行龍揚衛大護軍兼 經筵日講官 臣 金景善製 進.”

22) 『순조실록 해제』, 강만길, 1991년.

IV. 『燕輶直指』의 內容研究

金景善은 『燕輶直指』序文에서 역대 연행록을 대상으로 그 형식과 내용의 장단점을 논하고 아울러 자기나름의 평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 태도는 기존의 연행록들을 비교, 평가했다는 점에서 긴요한 글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내용 연구에 앞서 우선 서문을 살펴보겠다.

金景善은 서문에서 “燕京에 갔던 사람들이 대부분 紀行文을 남겼는데, 그 중 3家が 가장 저명하니, 그는 곧 老稼齋 金昌業, 湛軒 洪大容, 燕巖 朴趾源이다.”²³⁾라 하여 세 사람의 연행록이 지닌 역사적 의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金景善은 이 세 연행록에 대하여, 각기 기술의 형식과 내용의 장단점에 대하여 논하였다. 우선 장점으로 지적한 것을 살펴보면,

史例로 말하면 老稼齋은 編年體에 가까운데 평순하고 착실하여 조리가 분명하며, 洪大容은 記事體를 따랐는데 典雅하고 치밀하며 박연암은 전기체와 같은데 문장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해박하다. 모두 스스로 一家를 이루어 각기 그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 이에 이어 기행문을 쓰려는 자가 또한 어떻게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²⁴⁾

이상과 같이 金景善은 燕行錄을 기행문학 작품으로 문학적인 관점에서 이들 3가의 작품을 분석하여 고찰하기를, 첫째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는, 대다수의 연행록과 마찬가지로 연행의 여정을 날짜순으로 적은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바, 이처럼 “날(日)을 달(月)에다 붙이고 달을 해(年)에다 붙은 것.”²⁵⁾은 史書의 編年體에 가까우며 평순하고 착실하여 조리가 분명한 것이 그 장점이 될 것이라 하며, 이것은 編年體라 이름하였다. 둘째로 洪大容의 『湛軒燕記』는 인물, 명소, 사건 등의 주제에 따라 항목별로 나누어 기술하는 특이한 체재를 취하고 있으며, “각 사항마다 본말을 갖추고 있으며,”²⁶⁾ 전아하고 치밀한 것이 장점으로 취할 수 있다 하며, 이름하여 記事體라 칭하였다. 셋째로 박연암

23) 「燕輶直指 序」, 『燕輶直指』, 金景善. “適燕者多紀其行而 三家最著稼齋金氏 湛軒洪氏 燕巖朴氏也.”

24) 「燕輶直指 序」, 『燕輶直指』, 金景善. “史例々稼近於編年而平實條暢.”

25) 「燕輶直指 序」, 『燕輶直指』, 金景善. “稼齋之日繫 月月繫年也.”

26) 「燕輶直指 序」, 『燕輶直指』, 金景善. “湛軒之卽事而備本末也.”

의 『熱河日記』는 이상과 같은 두 유형의 여행록이 지닌 장점을 종합하면서, “간혹 자기 의견으로 발론한 것”²⁷⁾은 傳記體와 같은데 문장이 아름답고 화려하며, 내용이 풍부하고 해박한 것을 장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그 결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沿革에 있어 예와 지금이 서로 다른 데에는 갖추 그 전말을 기술하여 보는 사람의 의심이 풀리게 하고 피차 蹈襲을 면하기 어려운 곳에 있어서는 바로 전인들의 말 그대로 써서 전인들로 하여금 그 美를 차지하게 하였거니와 그 표현이 장황하여 語句의 세련을 요하는 데는 바로 전 분들의 기술이 이미 갖추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찌 나의 역량으로 마칠 바이겠는가?²⁸⁾

이와 같이 金景善은 기존의 여행록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역량이 그의 『燕轅直指』 저작에 밑바탕이 되었던 것이다.

임진년에 내가 三使 중의 한 사람으로 뽉혀 7개월²⁹⁾에 걸쳐 다녀왔는데, 山川, 道理, 人物, 諺俗 및 고금 사실을 수집할 수 있는 것과 使行 일의 시 말 및 언어 문자 중에 상고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 모으고, 따라서 즉시 기록하되 체계를 위 3家에 준하였다.³⁰⁾

위의 글은 金景善이 『燕轅直指』의 저술 방법을 밝힌 부분이다. 溫故知新을 실천하는 後進의 지혜로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즉 『燕轅直指』는 金景善이 선대 여행록 중 본받을 만한 것들을 선정하여 깊이 연구한 결과물인 것이다. 그는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여행록의 체재를 취하였고, 山川, 景物, 儀式 등을

27) 『燕轅直指 序』, 『燕轅直指』, 金景善. “燕巖之間以己義立論也.”

28) 『燕轅直指 序』, 『燕轅直指』, 金景善.

29) 燕轅直指 서문에서 저자는 이번 여행의 일정을 7개월의 일정이라 밝히고 있으나, 임진년 6월 2일 拜命하여 다음해 4월 2일 한성 도착까지는 5개월 12일, 즉 약 6개월이 소요되었다. 그 중 북경에서 1개월 17일간 머물렀다. 이 기간은 여타의 사행기간과 비교하여 약간 긴 편에 속한다. 예를들면 노가재 김창업은 4개월 27일이 걸렸고, 연암 박지원은 5개월이 걸렸다. 왕환 기간은 대개 짧게는 4개월 많으면 5개월이 걸렸던 것인데, 5개월이 넘으면 긴 편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하겠다. 또 路程도 康熙 18년 (1679 숙종 5)에 정해진 것과 같은 여정이었다.

30) 『燕轅直指 序』, 『燕轅直指』, 金景善.

기록할 때에는 기존의 세 연행록을 적절히 인용하였다. 세 연행록에 없는 사항은 자기대로 별도로 기록하였다. 아울러 金景善이 연행에서 체험한 山川, 道理, 人物, 謠俗 및 고급 사실을 수집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기술하였고, 또한 使行의 시말과 언어 문자 중에 상고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아서 그 잘못 된 점을 바로잡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이고, 사실적, 고증적인 『燕轅直指』의 기술의 태도는 19세기 전반기 문학사상 고증적 실학 정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은 문학 내지는 문화 전반에 걸친 정신사의 일면으로 파악이 된다.

醫術家에 비하면 이것은 마치 여러 의술가의 학설을 모아 종합하여 증세에 따라 방문을 낸 直指方과 같은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책이 다 되자 ‘燕轅直指’라 이름 붙이니, 무릇 여섯 권 책자로 되었다. 뒤에 이 使行이 길 가는 사람이, 辭陞로부터 복명할 때까지 언제나 일을 당하여 상고하고, 장소에 따라 참고하여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길을 안내하게 된다면 혹은 그 간편함을 자랑할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³¹⁾

위와 같이 『老稼齋燕行日記』, 『湛軒燕記』, 『熱河日記』등의 연행록을 포괄적으로 집대성하여 자신의 燕轅直指을 저술하게 된 바를 밝히, “이들 작품이 가장 자세하기 때문에 전편을 옮겨 기록하여 攷覽을 갖추어 놓았다.”³²⁾ 라고 『燕轅直指』를 마치며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견해를 위의 3家的 기록을 적극 수용하여 대신하는 것은 당시 천주교와 신문물을 소개하는 것은 자칫 이단으로 몰리기 쉬운 정치풍토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듯 하다. 이것은 저자가 노론계 집권사대부로서 지니는 신분의 한계에서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醫術家에 비하면, 이것은 마치 여러 의술가의 학설을 모아 종합하여, 증세에 따라 방문을 낸 直指方과 같다 하여 책의 이름도 『燕轅直指』라 한 것이다. 뒤에 이 사행 길 가는 사람이, 사페로부터 복명할 때까지 언제나 일을 당하면 상고하고, 장소에 따라 참고하여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길을 안내하게 된다면 이 작품의 의의가 여기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燕轅直指』의 기본 체재는 날짜 아래에 날씨와 도착 지명, 그날 일어났던 사

31) 『燕轅直指 序』, 『燕轅直指』, 김경선. “沿革之古今相殊…”

32) 『유관별록』, 『연원직지』, 권지 6, 『연행록 선집』 XI, 249면. “蓋其游覽交際之間 自各有節次 而此爲甚悉 故全篇移錄以 條巧覽云云.”

행중의 중요한 사실을 기록하였고 다음 別行으로 그날 그날 일어났던 사행 중의 중요 사실을 기록하였다. 일기의 끝에는 그날그날 보고 들은 관광, 명승 또는 어떤 사항의 내력들을 ‘記’라는 문체를 빌어 別錄하였다. 『燕輶直指』에서는 이 ‘記’가 책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주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날짜 아래 간혹 이 ‘記’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가지씩 별록되어 있다.

특히 ‘記’에서는 선대의 연행록의 내용을 충실하게 인용하고 있다. 필자가 그 인용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를 38편 인용하여 자신의 견해와 비교하고 적극 수용하기도 하였고, 洪大容의 『湛軒燕記』는 10편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朴趾源의 『熱河日記』는 무려 41여편을 인용 수용하고 있다.³³⁾ 그리고 간간히 자기 의견을 기술하여 총평을 가했으며 인용의 결자가 있으면 결자 표시를, 어려운 용어에는 간단한 풀이를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別註를 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燕輶直指』에는 선대의 연행록의 내용을 상당수 인용하고 있다. 이는 金景善이 간접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忌諱³⁴⁾에 저촉될 만한 소재를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기술의 태도도 지적될 수 있으며 아울러 함께 『燕輶直指』의 특징적 저술의 태도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선대의 연행록에서 서양을 중국의 선진문물을 통하여 소개하였다면, 金景善의 『燕輶直指』는 19세기 전반기의 동아시아의 서세동점의 위기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서세동점의 기록이 위기를 절감하고 그것을 극복

33) 燕輶直指에는 연행일기, 답헌연기, 열하일기 뿐만아니라 荷谷 허봉의 『朝天錄』, 月沙 李廷龜의 연행 기록도 인용하였고, 一統志등 옛 典籍을 다수 인용하였다. 일통지를 상고한 바는 다른 연행록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연행일기 인용의 사정은 『松山堡記』에서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하는 인용 어귀 역시 연행일기를 인용한 것이다.

34) 『回程錄』, 『燕輶直指』, 권지 5, 1833년 2월 12일 조. ‘獨樂寺記’에서 그 현판의 글귀를 감상하고 그 말씨가 悲憤에 감정이 있다고 하며 “그 말이 忌諱에 저촉됐는데도 거리낌 없이 顯刻했으니, 알 수 없는 일이다.” 타인의 현각을 염려하는 김경선의 의중은 미루어 짐작이 된다.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에도 忌諱에 저촉이 염려되어 연행시를 일기에 실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 忌諱의 저촉에 대한 관심은 조선후기 연행록 전반에서 적용된 사항이라 할 수 있으나, 특히 김경선이 연행하였던 19세기 전반은 세도 정치의 와중에 저자의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당대 동아시아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 연행록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金景善의 『燕賴直指』에 피력된 특징적 면모를 몇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1. 小中華 意識의 轉換

17세기 이후 朝鮮에서 對明義理論과 짝을 이루고 知識人들의 精神을 구속했던 논리 중의 하나가 小中華 意識이다. 그 주된 내용은 朝鮮의 文物 制度를 中華의 것으로 간주하고, 明 이후 단절된 中國의 文化를 朝鮮에서 계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箕子의 東來以後 朝鮮의 文化는 中華와 다름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또 華夷論의 주창자라 할 宋時烈은 舜, 文王이 변방 출신임을 예로 들어 성인, 현인이 나온다면 지역에 관계 없이 중화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한다.³⁵⁾ 이는 분명 역사 현실의 움직임을 무시한 허황된 것이지만 對明義理論, 北伐論과 맞물려 강한 전염력을 지니고 있었고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이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 淸은 夷이고 朝鮮은 華이다. 이것이 小中華 의식에 감염된 이 당시 지식인들의 華夷論이다. 이들은 그 주요 증거로 한결 같이 조선이 朱子家禮와 明의 衣冠制度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들면서 대단한 자긍심을 드러낸다. 당시의 청국은 漢族에게 胡俗을 강요하는 同化政策을 써서 明나라 傳統이 사라진 반면에 朝鮮에는 明의 衣冠 制度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사실, 18세기 전반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에는 연행 도중에 이르는 곳곳에서 의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 實學派 지식인들은, 中華의 遺風은 물론이려니와 청조 문물 중에서도 본뜬만한 것은 배워서 朝鮮에 利用厚生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부국이라고 논파하고 있다. 이에 이르면 소중화 의식은 무의미할 뿐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되고 만다. 다음은 박지원이 피력하는 華夷論에 관한

35) 유봉학, 「북학사상의 형성과 그 성격」, 한국사론 8, 232면.

기록이다.

尊周의 思想은 周를 높이는 데에만 국한될 것이요, 夷狄의 문제는 이적에 서만 쓸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中國의 성곽과 건물과 백성들이 예와 같이 남아 있고, 正德, 利用, 厚生의 도구도 파괴된 것이 없으며, 崔, 盛, 王, 謝의 씨족도 없어지지 않았고, 周, 張, 程, 朱의 학문도 사라지지 않았으며, 夏, 殷, 周, 三代이후로 성스럽고 밝은 임금들과 漢, 唐, 宋, 明의 아름다운 법률 제도도 변함없이 남아 있다. 저들이 夷狄일망정 실로 中國이 자기에게 이로워서 길이 누리기에 족함을 알고, 이를 빼앗아 웅거하되 마치 본시부터 지니었던 것 같이 한다.³⁶⁾

위의 글에서 朴趾源은 淸은 비록 ‘夷’이나 중화 문명을 계승, 보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 문물은 ‘華’라는 小中華主義와 일맥상통하나, 北伐論者의 華夷論과는 또 다른 논의를 제시하였다.

당대 朝鮮의 華夷觀에 대하여 새로운 對淸認識을 피력한 글이다. 그는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지금 朝鮮에서 中國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허구적 자기 위안에 지나지 않음을 폭로하고 있으며, 현실적 관점에서 청국을 이해하여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부국강병책을 제시하였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연행사의 대청인식은 자국의 부국강병으로 현실지향적 실제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

19세기 전반의 金景善의 시대에 이르면 對明義理論이 전제된 小中華 意識은 현실적인 힘을 상실한다. 金景善은 청국의 복색 제도는 “천자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검박하고 사치한 구별은 있지만 그러나 그 제도는 한가지다. 작위와 품계의 고하는 오직 帽頂과 補服으로 구별한다.”³⁷⁾고 자신이 견문한 바를 밝히고 120 년 전에 연행하여 청국의 의관, 조복 등 복식제도를 기술하였던 金昌業의 기록을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대로 인용 수록하였다. 다만 복식을 기술하는 마지막 문장에서 19세기 전반기 지식인의 의식을 피력하고 있다.

북경 사람들은 豹皮, 玉版, 陸珠, 北豹 등을 무척 진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면 이익을 매우 많이 본다.

36) 『馴迅隨筆』, 『熱河日記』, 1780년 7월 15일 조.

37) 『복식』, 『연원직지』, 권지 6, 유관별록, 169면.

말을 타고 사냥을 하거나 먼길을 가는 사람은 모두 鹿皮로 된 두 쪽으로 갈라진 치마를 만들어 무릎 앞에 댄다. 이것은 바지가 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³⁸⁾

이제는 淸이 바로 중원이자 西洋의 힘에 맞서 東洋을 지켜야 할 주체가 된 것이다. 華夷論이나 小中華를 거론하기에는 시대가 달라진 것이다. 서장관의 신분을 가진 지식인이 상업적인 이익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주목되는 사항이다.

또한 金景善은 回子國 사람들이 마을을 이루고 사는 回子村³⁹⁾에 대하여, 給諫 李清의 續表忠記를 인용하고 있다. 淸이 明을 지배하자 회회국 사자는 적의 부름을 받고 절하지 않자 죽이려 하니, 사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임금은 명나라 천자가 계심을 알 뿐이요, 나라가 바뀔 줄은 알지 못하오. 만약 돌아가 우리 임금에게 아뢰어서 貢物을 가지고 와서 조회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지금은 임금의 명령이 없는 까닭에 감히 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적이 끝내 굴복 시키지 못하였다.⁴⁰⁾

이 글을 마치며 金景善은 “무릇 사람에게에는 각기 하늘이 부여해 준 떳떳한 性이 있어, 처음엔 中華와 夷狄의 구별이 없는 것이다. 당시 임금을 잇고 적에게 붙은 자로서 이들을 보았으면 능히 부끄럽지 않겠는가?”⁴¹⁾ 자국의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화이가 인정된다는 논리를 피력하고 있다. 당대 朝鮮 儒學者의 華夷論과는 변별되는 對淸認識의 글이다. 夷狄이라 하더라도 자국이 인정한다면 中華로 인정이 된다는 의식이며, 이는 보수적인 이론의 이면에 民族的自尊의 이론이 근거하는 華夷論이라 하겠다.

38) 같은 책, 176면.

39) 回子國은 러시아 남쪽에 있어 중국과는 거리가 만여 리가 되는데, 이들은 명나라 때부터 들어 와서 회자관에 기거하였으나 식구가 불어나자 館에서 그 인원을 수용할 수 없어 스스로 마을을 이루어 회자촌이라 하였다.

40) 「回子館記」, 『燕轅直指』, 권지 5, 유관록 하, 1833년 1월 16일 조.

41) 같은 책, 같은 날.

2. 利用厚生의 繼承

18세기에 북경을 여행한 洪大容, 朴趾源은 中國의 발달한 문물을 받아들여 낙후한 조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利用厚生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金景善이 燕轅直指를 저술하였던 19세기에 이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제 더 이상 對明義理論은 논의되지 않고, 문물의 발전을 통해 서양의 힘에 대항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의지는 金景善의 『燕轅直指』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는 연행록을 통하여 18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는 지식인의 선진문물의 수용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일찍이 朴趾源은 자신이 燕行에서 본 가장 위대한 壯觀은 기와조각에 있었고, 또한 뚝무더기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朴趾源은 중국의 발달한 문물이나 先進知識은 겸허하게 배우되 어디까지나 주체적인 입장을 견지하려고 애썼다. 그의 연행 목적은 단지 중국을 배우는 데 개혁할 역사적 전망을 확보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熱河日記』에는 선진문물을 두루 배워 당시의 낙후한 조선 현실을 개혁하려는 利用厚生의 實學精神과 주체적인 세계인식의 자세가 일관되게 견지되어 있다고 하겠다.

金景善은 『帽廠記』에서 朴趾源의 글을 인용하여 자신의 利用厚生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帽廠이라는 것은 모자를 만드는 공장으로 중국사람이 쓰는 모자와 우리나라의 冠帽가 모두 여기서 생산된다는 것이다. 모자는 한사람이 삼동을 지내기 위한 것으로 봄이 되어 낡으면 이를 버린다. 천년이 가도 부패하지 않는 銀을 가지고서 삼동이면 낡아서 버리는 모자를 바꾸고 산에서 캐낸 한錠된 물건을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곳으로 보내다니 어찌 생각지 못함이 이처럼 심한가.⁴²⁾

이상과 같이 金景善은 朴趾源의 『熱河日記』에 기록된 모창기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 말이 참으로 옳다, 만일 이 폐단을 구제하려면 마땅히 먼저 양을 길러야 하고 양을 길러서 그 털은 모자를 만들고 그 고기를 먹으면, 모자로 銀을 소비해 가며 타국에 의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흉년을 구제하는 방법

42) 「帽廠記」, 『燕轅直指』, 권지 2, 출강록.

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세끼를 먹고 배를 채우는 것은 오직 곡식에 있다고 알기 때문이다”⁴³⁾

이상과 같이 金景善은 중국인들의 식사와 우리나라의 식사관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다. 그리고 양의 사육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 방법이 잘못되었는데도 토질이 맞지 않는다고 책망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양의 사육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朴趾源은 조선의 온돌 제도의 6 가지 결점을 들어 중국에서 본 난방과 비교하고, 수레의 이용에 대한 탁월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것을 金景善은 「器用」에서 인용하고 있다. “무릇 수레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나와 땅에서 운행되는 것으로, 물 없이 가는 배요 능히 움직일 수 있는 가옥이다. 나라의 大用에 있어 크게 소용되는 것이 이 수레만한 것이 없다.”⁴⁴⁾는 것이다.

그래서 『周禮』에서는, ‘國君의 富를 물으면 수레의 숫자를 세어서 대답한다.’고 했다. 사실 수레는 물건을 싣거나 타거나 할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戎車(兵車), 役車, 水車, 砲車 등 갖가지의 제도가 있다. 이들을 지금 풀지에 다 알 수는 없으나, 짐 싣는 수레와 사람이 타는 수레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民生과의 관계가 깊은지라 불가불 시급히 연구하지 않을 수 없다. 내 일찌기 湛軒 洪德保, 참봉 李聖載(李匡呂)와 더불어 수레의 제도를 연구해 보았는데, 여기에 있어서는 동궐(同軌)이 가장 선결 문제이다. 이른바 동궐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두 바퀴 사이에 잇는 굴대 [軸]의 거리이다. 두 바퀴 사이가 일정한 간격을 벗어나지 않을 것 같으면 1만 대의 수레가 모두 한 바퀴 자국 [一轍]으로 가게 되는 것이니, 이른바 車同軌란 것이다. 두 바퀴 사이의 거리가 멋대로 좁았다 넓었다 하면 길 가운데 있는 바퀴 자국이 어떻게 궤도 [軌]에 맞아들어갈 것인가? 이제 沿道 천릿길을 보니, 하루에 1만 대의 수레가 지나가도 앞수레와 뒷 수레가 다같이 한 자국만을 따라간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같은 것’ [不謀而同者]을 ‘一轍’이라 하며 그 수레바퀴가 지나가는 城門이 오목하게 패어서 대 홈통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城門之軌’이다.⁴⁵⁾

민생의 일용품으로 쓰이는 많은 것들이 여기서는 험한데 저기서는 비싸며,

43) 『연원직지』 권지 2, 「출강록」, 『연행록선집 X』 168면.

44) 「器用」, 『燕輅直指』, 권지 6, 유관별록. “大凡車者出乎天 而行乎地用旱之舟而能行之屋也 有國之大用莫如車.”

45) 「器用」, 『燕輅直指』, 권지 6, 유관별록.

『馴迅隨筆』, 『熱河日記』, 車制.

이름만 들었지 보지는 못한 것은 운반할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적 관점에서 유통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는 사방 수천 리 밖에 안 되는 곳이나 백성의 산업이 이렇듯 빈곤한 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수레가 운행되지 않는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레를 비롯한 일상 생활에 유용한 器用이 원활히 발달하지 못하는 연유를 들어서 조선 사대부들의 공리공담을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한평생 독서를 하고 나서 말하기를, ‘周禮’은 성인께서 지으신 책이다’ 하며, 혹은 輪人이니, 與人이니, 車人이니 하는 등의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법이 어떠한가 운행하는 법이 어떠한가 하는 데 대해서는 끝내 아무런 연구도 하지 않는다.”⁴⁶⁾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말하기를 진실로 民生의 일용을 이롭게 하고 국가를 다스리는 큰 器用인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金景善은 문물의 발달이 모두 긍정할 만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는 淸의 市肆를 둘러보고는 북경의 변화한 시장 점포에 대하여 “각색의 화물이 구름 같이 쌓여 있지만 민생이 일용함이 없어서 안 될 물건은 실로 열에 하나 둘일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가 노리게감으로 쓸데없는 물건들이다. 그런데도 이것이 팔려 이익이 남는 것을 보면 그들의 습속이 얼마나 사치한가를 알만하다.”⁴⁷⁾라고 하며 그 물화의 풍부함에 놀라면서 그것들의 사치품 위주에는 대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金景善이 『燕輶直指』에서 비중있게 다루었던 것은 중국의 천지산천에서부터 성곽, 음식, 토산제물, 복식, 기용, 초목, 금수, 인물요숙, 기예, 조람교유 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고 포괄적이다. 특히 선진 문물에 대한 실용성에 대한 관심은 그의 선진의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는 풍구, 풍차, 체의 제도, 목화 타는 법, 물레 제도, 베틀의 제도, 각 공장의 기계에 대하여 관찰 기록을 남겼고, 특히 벽돌 사용의 이로운 점을 기술하고 있다.

벽돌을 굽는 법은 그 묘함이 그것을 구워내는 가마에 달려 있다. 가마를

46) 같은 책, 같은 날.

47) 「城郭市肆」, 『燕輶直指』, 권자 6, 유관별록. “各樣物貨 殆雲委霧集 而民生日用 不可無者 實不過十之一二 其餘皆玩好無用之物 猶此見今而取利 可知其習俗之侈靡 而亦可見中國之大.”

만들 때는 먼저 구벽돌을 쌓아 가마를 만드록 석회로 바르는데, 모양이 마치 鍾을 얹어놓은 것 같다. 그리고 옆에 연기 구멍 4-5개를 뚫어 놓는다. 흙을 채로 쳐서 회에 섞어 가지고 한 가지 틀로 찍어 내기 때문에 모양이 일정하다. 길이가 1척, 광이 5치 [寸], 두께가 2치인데, 2개를 나란히 놓으면 정방형이 된다. 가마 속에다 이것을 깔아 놓을 때는 우선 방고래처럼 10 여 줄을 짚지어 세워 놓고, 그 위에 다시 비스듬히 배열을 해서 가마 꼭대기까지 닿게 한다. 구멍은 저절로 소통이 돼서 불길의 위로 올라가며 서로 불목 구멍이 되어 불길은 마치 빨아 들이듯이 들어간다. 수수깡 3백 줌만 있으면 한 가마의 땀감이 되며 벽돌 8천 장을 구워낼 수가 있다. 그리고 처음에 가마 꼭대기에 따로 구덩이 하나를 뚫어 놓았다가, 벽돌이 다 구워진 뒤에는 아궁이를 진흙으로 막고 꼭대기 구덩이에 물을 붓는다. 여러 번 한 뒤에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벽돌을 꺼낼 때라고 한다.⁴⁸⁾

그리고 벽돌은 한 상자에서 모형이 나오는 지라 일만 개의 벽돌이 모두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 여러날 기다리지 않아도 城은 이미 완성된다는 것이다. 벽돌이 있으니 성곽은 그 축성이 쉽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利用厚生에 관하여 金景善은 벽돌, 온돌, 수레, 일용기구 등에 대한 유효성을 거론하면서 이들의 이용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물화의 풍족함이 초래하는 부정적 측면까지 지적하면서 실용적 가치를 지닌 것들을 수용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實是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天主教에 대한 見解—서천주당에 대한 기록을 중심으로—

金景善이 살았던 19세기 전반기는 천주교에 대한 삼엄한 탄압이 행해졌다. 천주교는 정조 15년(1791)의 珍山 事件 등을 겪으면서도 정조의 탄력적 대응책 때문에 심한 탄압은 받지 않았고, 교세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 결과 정조 말엽에는 전국의 신도가 약 1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800년 정조가 죽고 순조가 즉위하면서 바로 '辛酉邪獄'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국내 상황하에서 북경의 천주당을 방문하게 된 金景善은 자연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天主教가 중국을 여행했던 인물들을 통해 들어왔다는 것⁴⁹⁾은 이미 주지된

48) 『樓觀寺廟』, 『燕輶直指』, 권지 6, 유관별록.

49) 1610(광해군 2) 陳奏副使로 명나라에 갔던 許筠(1569-1618)이 조선 최초의 천주

사실이다. 이것은 『老稼齋燕行日記』, 『湛軒燕記』, 『熱河日記』에 공통적으로 북경에서 천주당을 참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개연성이 인정된다.

18세기 이후 중국을 내왕한 연행사들의 큰 관심사의 하나는 천주당에 있었다. 그들은 천주당을 참관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과의 만남에 적극적이었다. 당대 조선 사람이 서양과 만나는 길은 북경 천주당이 유일한 통로였다. 그러므로 조선 연행사의 천주당 참관은 보다 큰 관심의 세계일 수 밖에 없었다.

우선 金景善이 중요하게 인용하고 있는 『老稼齋燕行日記』에서 天主堂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다.

宣武門 안 동쪽으로 鐵鐘이 높이 보이는 이는 天主臺이다. 外面에 ‘天主臺’라 편액에 써 있었으며 남쪽 홍예문으로 들어가니, 북벽에 머리를 풀고 팔을 들어내며 火珠를 들고 있는 塑像이 있으며 그 사람은 머리를 풀어 헤치고 어깨를 내어 놓았으며, 얼굴은 살아 있는 듯하였다. 그 위에 ‘天地眞主’, ‘敬天’이라는 글씨는 황제의 필적이었다. 좌우의 벽에는 각각 像을 하나씩 걸었는데 그 모습은 북쪽 벽의 것과 같았다.⁵⁰⁾

金昌業은 천주당을 참관하고 예수상을 묘사하고 있으나, 머리를 풀어헤치고 살아 있는 듯한 얼굴의 주인공이 예수상인지는 모른 듯하다. 金昌業은 조선에서 문인 화가로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서양 회화를 접하는 기회가 적었던 金昌業이 西洋畵의 기법을 제대로 이해하기에는 무리였다. 그러나 金昌業은 渾天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홍예문 좌우 석면에 돌아가며 12방위를 썼고 중간에 鐵針을 끼웠는데, 이로써 日影을 보는 것이었다. 위에 크고 작은 종을 달았는데 종은 각기 치는 것이 있으며 중앙에 있는 것이 가장 높고도 컸다. 혼천의가 그 위에 있다.

기둥도 같고 서까래도 같으며 竹(죽)와 같은 것이 무수히 늘어섰는데, 대소가 똑같지는 않으나 모두 금, 은으로 칠했고, 그 위에 철판 하나를 가로놓았는데 그 한쪽에는 구멍이 무수히 뚫렸으며, 한쪽은 부채와 같다. 조금 있다가 일영을 보니 그 방위에 도달하자 대 위의 대소 종이 각기 네 번씩 치고 중앙에 큰 종이 여섯 번 울렸다. 이것은 自鳴鐘이란 것이니, 이상할 게 없고, 특이한 것은 종소리가 겨우 그치지자 동쪽 홍예문 안에서 갑자기 한 바

교 신자가 되었고 12端을 얻어왔다. 또는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명나라에 사신으로 왕래한 이수광(1563-1628)이 마테오 리치의 《天主實義》, 《重友論》등을 그의 저서 《芝峰類說》에 소개한 데서 비록되었다고 한다.

50) 『연행일기』, 권지 5, 계사년 2월 6일 조, 376면.

탕 바람소리가 못 바퀴를 굴리는 듯이 들리더니, 이어서 풍악이 시작되는데, 笙簫, 絲竹 (관 현악기란 뜻)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알지 못했으나, 律呂가 맞고 宮商이 가락을 이루었다.⁵¹⁾

이상은 金昌業의 『燕行日記』에 서술된 渾天儀, 自鳴種, 풍금에 대한 관찰 기록이다. 혼천의와 자명종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풍금에 대하여서는 새로운 사물에 대한 관찰이 모호한 일면이 있다. 그러나 金昌業은 북경을 떠나 泡子河 강 연변에 있는 欽天監에서 관찰한 혼천의에 대한 설명은 보다 구체적이다. 새로운 사물에 대한 큰 관심은 인정되는 바이다.

18세기 후반기 여행사의 일인이었던 洪大容도 천주당 참관이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였다. 특히 洪大容은 연행이 있기 전, 그의 나이 29세 (1759)때 전라도 나주에서 과학자 羅景績의 도움을 얻어 3년의 노고 끝에 渾天儀⁵²⁾를 완성하였다. 洪大容은 혼천의를 고향 水村으로 옮겨 사설천문대라고 할 수 있는 籠水閣에 올리고, 또한 이곳에 자명종, 통천의, 측판의 등을 갖추어 두고 연구를 하였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洪大容이 이번 연행에서 천주당의 서양과학에 열심이었던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천주당 방문 전의 일기에서, 천주당에 대한 다음과 같은 예비지식을 숙회하고 있다.

明나라 萬曆 (神宗의 연호) 연간에 利瑪竇가 중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서양 사람의 교통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算數를 가지고 傳道하기도 하고, 또 儀器를 전공하여 기후를 귀신처럼 측량하기도 하고, 曆象에 精妙함은 漢, 唐이후 없던 것이었다.⁵³⁾

洪大容의 천주당 견문기는 주로 서양과학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고대로 과학 기술이 있었으나, 그 歲差의 법에 있어서 그 상세함이 이르지 못하여 망상과 억측으로 있었는데 지금의 서양의 법은 수치에 근본하고 儀器로

51) 같은 책, 같은 곳.

52) 김태준 : 『홍대용과 그의 시대』, 97면-98면, 일지사, 1982년. “홍대용이 중국 여행이후에, 서양 선교사의 영향으로 혼천의를 만들었다고 기술한 과학사가 있다. 주의를 요한다. 우리 나라는 일찌기 조선 중기의 李退溪 (1501-1570)나 宋尤菴 (1607-1689)등이 제작한 혼천의를 가지고 있었다.”

53) 「劉鮑 問答」, 『담헌서』 IV, 外集 권지 7, 39면. 劉鮑問答은 홍대용이 천주당을 찾아서 서양 선교사인 劉松齡과 鮑友官과 나누었던 문답을 기록한 것이다.

써 그 온갖 형상을 측량하니, 천하의 遠近, 高底, 부피, 중량을 눈앞에 모아 놓고 손바닥을 가리키듯 하니 이것은 漢, 唐 이래 없었던 것이라고 천주당의 참관에 대한 견해를 과학적인 측면에서 피력하고 있다.

康熙 말년에는 경에는 서양에서 건너온 이가 더욱 많았으므로 황제가 그들의 기술을 채집, 『數理精蘊書』라는 것을 만들어 欽天監에 주었으니, 이는 참으로 曆象에 있어 서 심오한 근본이 된 것이다. 이에 성 안에 4堂(동당, 서당, 남당, 북당)을 지어 그들을 살게 하였으니 天象臺라 불렀다. 이 때문에 서양의 학문이 성하기 시작하여 天文을 말하는 이는 그들의 기술을 祖述하게 되었다.⁵⁴⁾

이상으로 康熙帝 말년에는 서양 선교사의 그 수가 많았으며 『數理精蘊書』가 편찬되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洪大容은 천주당에서 자명종, 망원경, 나침판, 曆法에 이르기 까지 온갖 과학적 기계를 관심 있게 관찰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조예가 깊어서 천주당의 풍금에 대한 관심 또한 지대하였다. 洪大容은 즉석에서 거문고의 가락에 의거하여 풍금을 연주하며, “이것이 동방의 음악입니다.”⁵⁵⁾ 하니 안내하던 유승령이 놀라워 하며 칭찬을 하기도 한다.

朴趾源의 북경 천주당 견문기는, 유럽의 선진적인 과학 기술 문명과 새롭게 만나는 서양 회화 예술에 대한 충격을 엿볼 수 있다. 『熱河日記』 가운데 「洋畫」는 朴趾源이 귀국한 후 연암협에서 쓴 글이다.⁵⁶⁾

천주당 가운데 바랍벽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 구름과 인물들은 보통 생각으로는 헤아려 낼 수 없었고, 또한 보통 언어, 문자로는 형용할 수 없었다. 내 눈으로 이것을 보려고 하는데, 번개처럼 번쩍이면서 먼저 내 눈을 뽀는 듯하는 그 무엇이 있었다. 나는 그들(화폭 속의 인물)이 내 가슴 속을 꿰뚫고 들여다 보는 것이 싫었고, 또 내 귀로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데, 굵어 보고 쳐다 보고 돌아 보는 그들이 먼저 내 귀에 무엇을 속삭이었다. 나는 그것이 내가 숨긴대를 꿰뚫고 맞힐가봐서 부끄러워 하였다. 네 입이 장차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데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돌연 우뢰 소리를 내는 듯하였다. 가까이 가서 보매 성긴 먹이 허술하고 거칠게 묻었을 뿐, 다만 그 귀, 코, 입 등의 짙과 터럭, 수염, 살결, 힘줄 등의 사이는 희미하게 그어 갈

54) 「西天主堂記」, 『燕巔直指』, 권지 3, 유관록 상.

55) 『답헌서』 IV, 外集 7권, 「연기」, 유포문답. 1766 1월 8일 조.

56) 「黃圖紀略」, 『熱河日記』 II, “洋畫” 444면-446면.

이암, 「연암 박지원의 화론과 문학진실론」, 민족문화사연구 7호, 1995년.

랐다. 터럭 끝만한 칫수라도 바로 잡았고, 꼭 숨을 쉬고 꿈틀거리는 듯 음악의 향배가 서로 어우러져 절로 밝고 어두운데를 나타내고 있었다.⁵⁷⁾

朴趾源은 여기에서 천주당에 있는 천주상에 대하여 보통 생각으로는 헤아려 낼 수 없으며, 보통 문자로는 형용할 수 없었다는 표현으로 서양 예술과의 만남을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당대 조선의 봉건 문화 여건에서 그에게 서양 회화 예술은 새로운 문화였으며 그의 예술세계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하겠다. 그리하여 朴趾源은 귀국한 후 북경 천주당 서양화에 대한 평론을 기술하여 조선에 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朴趾源은 동양화와 서양화를 비교하여 서양화의 장점과 예술적 가치를 피력하였다.

무릇 지도를 그리는 자들이 걸만을 그리고 속을 그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체에는 튀어나오고 들어간 곳, 가늘고 遠近의 형세가 있는데도,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그 사이에서 대략 두어 번 붓을 대는 정도여서, 산에 굴곡이 없고나 물에 물결이 없고나 나무에 가지가 없기도 한다. 이것은 이른바 寫意⁵⁸⁾의 법이다.⁵⁹⁾

이상은 동양회화에 있어서 화법상 구체적인 물상의 섬세한 부각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필묵법으로써 창작 주체의 주관적 정감, 의경, 표달을 구체화하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서양화에서는 섬세하고 치밀하며 구체적이고 기하학적인 묘사 처리 가운데서 입체적인 질감을 객관 진실성을 도모하는 반면에 동양화는 필묵의 농담이나 점, 선의 교차 혹은 명암과 허실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객관적 물상의 골상상태, 기운이나 본질적인 원형을 그려 내어, 예술가 자신의 인격, 심성, 정감을 주입함으로써 작가의 내재적인 의향을 표현하는 것이 중신이라는 것이다. 소위 뜻을 그린다는 寫意之法이 그것이다.

그러나 朴趾源은 동양화의 의정을 피력하고 이어서 杜子美(甫)의 시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마루 위에 단풍나무 어인 일인고, 강과 뚝 속에서 안개 이니 피이하기도 한 저이고.’라 하였으니, 대체, ‘마루 위’란 나무가 날 데가 아니요, ‘어인 일

57) 『黃圖紀略』, 『熱河日記』Ⅱ, “洋畫” 445면.

58) 寫意는 사물의 精神을 그려내는 화법.

59) 같은 책, 같은 곳, 444면.

고란 말은 이치에 맞지 않음을 이룸이었으며, 내는 웅당 강과 뚝에서 일어나겠지마는 만일 병풍에서 일어난다면 매우 꺾이찍은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⁶⁰⁾

朴趾源은 중국이나 조선의 고대 산수화의 主觀隨意性과 공간의식의 淡薄性이 지니는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朴趾源의 그림에 대한 미학적 견해는 그의 탁월한 여타의 논설과 함께 주목되는 사항이다.

이상과 같은, 洪大容의 과학자적 관찰과 朴趾源의 미학적인 관찰은 金昌業의 천주당 전문에 대하여, 특히 金昌業의 풍금에 대한 기록은 이들의 비판적 대상이 되었던 곳이다. “한바탕 바람 소리가 못 바퀴를 돌리는 듯이 들리더니 풍악이 시작되었다.”하는 이하의 대목이 문제였다. 이 애매 모호하게 표현된 사물은 다름아닌 風琴이었던 것이다. 이 풍금에 대한 문제를 老稼齋보다 68여년 후에 천주당을 찾은 朴趾源이 정중하게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내 친구 洪大容이 서양 사람들의 기교를 논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 나라의 선배들 가운데 金昌業과 李器之 같은 이들은 모두 식견이 탁월해서 후세 사람들로서는 따를 수 없는 정도이고, 중국을 올바르게 관찰한 데 있어서는 더우기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天主堂에 대한 기록에는 약간의 유감이 없지 않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인데다 얼핏 보아서는 도저히 그 이치를 알 수 없었던 탓이라. 뒷날 북경에 간 사람들도 모두들 제일 먼저 천주당을 구경한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것들이 황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뿐이기 때문에 도리어 꺾이하게 여겨, 이를 배격하기 일쑤다. 이는 그들의 눈에 그 이치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金昌業은 건물과 그림만은 상세히 관찰했고, 이기지는 그림과 천문을 관측하는 기계에 대해 더욱 상세히 관찰했다. 그러나 風琴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두 분은 음물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분별할 수 가 없었던 탓이라. 나도 귀로 풍금 소리를 들었고, 눈으로 풍금의 모양을 관찰했지만, 그 오묘한 이치를 글로 다 옮길 수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다.’⁶¹⁾

위에서 지적된 老稼齋 金昌業 (1658-1722)이나, 一菴 李器之 (1690-1722)등 18세기 초기의 학자들은 그의 견식이나 중국 인식에 있어 선진 의식이 갖추었음은 인정 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天主堂의 이해에는 유감이

60) 『黃圖紀略』, 『熱河日記 I』, 444면, “洋鑿”. “堂上不合生楓樹 怪底江山起烟霧.”

61) 『黃圖紀略』, 『熱河日記 I』, 441면, “天主堂”.

없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즉 金昌業은 天主堂의 건물이나 그림에만 상세하였고, 李器之는 그림과 천문 관측의 기계에 자세하였으나, 풍금의 이야기에 이르면 묘리를 채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음악에 대한 관심 여하를 말해준다. 洪大容은 이 점을 지적하며 朴趾源과 함께 읽었고, 이야기는 하면서도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풍금의 구조와 소리나는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洪大容은 나라에서 명령을 내린다면 자신이 이를 만들 수도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사실 洪大容은 北京 南天主堂에서 처음으로 풍금을 보았을 때 즉석에서 玄琴曲 일장을 연주하는 놀라운 솜씨를 보이기까지 하였던 인물이다. 한편, 이런 자세한 내력을 쓰고 있는 朴趾源은 풍금 만드는 제도를 여러 번 반추해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당시 南天主堂이 헐려 있어 풍금을 볼 수 없었던 것을 슬퍼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 해야할 사실은 서양과학이 본격적으로 중국에 들어와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은 康熙帝 (재위 1661-1722) 말년으로, 金昌業이 연행하였던 1712년과는 시기적으로 거의 동시적이지만 아직은 그 역할이 활발하기에는 이른 시기였다고 보아진다. 더불어서 이러한 서양 과학이 조선에서 수용하기는 洪大容을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金昌業이 천주당을 소개하면서 혼천의, 자명종, 풍금에 대한 상세한 사실 기록은 후대 연행사에게 호기심을 자극한 동기가 되었으며, 같은 사물을 두고 전문한 바의 심도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 후대 연행사들은 바로 金昌業의 기록에 의하여 연행이 있기 이전에 상당한 정도의 예비 지식을 갖춘 관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金景善은 이렇게 선배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天主堂을 방문하고, 「西天主堂記」를 쓴다. 그는 여기에서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천주당의 기록을 아우러서 그들의 기록을 집대성하였고, 서양 사람 利瑪竇⁶²⁾가 방물과 천주의 상을, 명나라 만력 29년 (선조 34 1601년 2월) 바쳐 왔다.⁶³⁾ 고 기록하여 서양과 중국

62) 利瑪竇는 이태리의 예수회 수도사인 Matteo Ricci(1552-1610)를 말한다. 마테오 리치는 1580년 남경에 入京하여, 1601년 북경에 들어와 서학과 서양과학을 전한다.

63) 「西天主堂記」, 『燕轅直指』, 권지 3, 유관록 상,

이 교통한 것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서양이 治曆書에 정밀하고 또 推測의 여러가지 器機가 대단히 기이하고 교묘하므로 명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사관을 주어 대접함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그 나라의 제도대로 집을 만들어 살게 했다.”⁶⁴⁾고 사실적인 내용만을 적고 있다.

그 術은 부화와 거짓을 끊고 정성과 믿음을 귀하게 여김으로써 上帝를 섬기는 것을 宗旨로 하고, 忠孝慈愛를 工務로, 遷善改過를 入門으로 삼으며, 生死 같은 일에 대비하여 큰 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을 究竟을 삼으면서, 스스로 근원을 찾고 근원을 窮究하는 학문이라 한다.⁶⁵⁾

金景善은 이상과 같이 학문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천주교를 종교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立志가 높은 데에 치우치고 말이 교묘한 데에 치우쳐서, 도리어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誣罔하고 의리를 어지럽히고 인륜을 상하게 하는 과목으로 되돌아가는 줄을 모른다. 그것이 처음 중국에 들어올 적에 중국 사람 중에도 그 학문을 배우는 자들이 있었는데 乾隆 때에 비로소 금지하였고, 그 사람들을 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한다.⁶⁶⁾

金昌業을 비롯하여 천주당을 방문한 전대의 연행사들은 천주교의 종교적 측면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곳에 있는 서양의 문물만 유심히 관찰하고 자신들의 견문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金景善 시대에 이르면 천주교는 국내에서 일정한 세력을 가진 종교로 인식되었으며, 북경에서 천주당을 방문하는 것도 더 이상 그곳의 문물을 구경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위의 글에서 金景善은 천주교는 인륜을 해치는 해악한 종교로 중국에서도 금지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조선만이 천주교를 탄압하는 것이 아님을 은연중 밝히는 부분이다. 천주교가 중국에 들어와 비로소 건륭 황제 (淸 高宗 1736-1795)에 이르러 금지되는 사정을 말하여 1801년의 신유사옥이 그 연장선 상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⁶⁷⁾ 문물, 회화를 관광하던 수준의 천주당 방문기가 종교

64) 「西天主堂記」, 『燕轅直指』, 권지 3, 유관록 상.

65) 「西天主堂記」, 『燕轅直指』, 권지 3, 유관록 상.

66) 「西天主堂記」, 『燕轅直指』, 권지 3, 유관록 상.

67) 조선조에 天主實義가 소개된 것은 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 책이 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이다. 천주실의 역시 조선에 전해진 것은 역시 중

적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金景善의 『燕轅直指』인 것이다.

V. 結 論

본고는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金景善의 생애와 그의 燕行錄을 고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 金景善의 『燕轅直指』는, 日本 使行의 기록인 『海行摠載』⁶⁸⁾중에서 趙曦의 『海槎日記』에 비견할 수 있는 것으로, 燕行錄의 集大成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燕轅直指』는 조선 후기 대표적인 연행록인 金昌業의 『老稼齋燕行日記』, 洪大容의 『湛軒燕記』, 朴趾源의 『熱河日記』를 속독하고 그 성과를 아울러서 완성한 저작이다.

물론 金景善은 洪大容의 과학 정신이나 朴趾源의 이용후생적 개혁 의지를 발전시켜 새로운 지식과 선진 문물의 수용을 바탕으로 개혁의지를 실천하는 방안을 모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19세기 전반기의 동아시아의 서세동점의 위기 상황을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당대 동아시아의 상황을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 연행록으로 그 의미 부여가 인정 된다고 하겠다.

연행문학 상에 있어서 『燕轅直指』의 체제와 내용이 지니는 특징은 당대 조선 사회 전반에 걸쳐 풍미하였던 보수 경향으로 규정할 수 있다. 『燕轅直指』가 방대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객관적, 실증적, 고증적인 기술

국에 사행하였던 사신 일행에 의한 것으로, 17세기 柳夢寅(1559-1623)의 『어유야담』이나 李暉光(1563-1629)의 『지봉유설』등에 이미 소개와 비평이 보인다. 許筠(1569-1618)은 1610년 북경에서 천주교 12단을 가져 왔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조선지식인들이 본격적으로 천주교에 대한 관심과 신자가 생기는 것은 18세기에 이르러서이다. 이승훈은 1783년에, 동지사의 서정관이 된 부친 이동욱을 따라 연행하였고, 이듬해 북경 남천주당의 “Louis de Grammont” 신부에게서 조선인으로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때 한국의 천주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 68) 『海行摠載』는 1748년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온 洪계禧의 손에 처음 수집 편찬되었던, 모두 61篇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다 한다. 이 역시 민족문화추진위원회에서 국역되어 전하고 있다.

의 태도를 지켜 가는 것은 19세기 전반기 문학사상 고증적 실학 정신과도 맥락을 같이한다는 점은 문학 내지는 문화 전반에 걸친 정신사의 일면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다.

특히 『燕轅直指』 전반에 걸쳐 관찰되고 있는 金景善의 기술의 태도는 자신의 견해를 앞세우기 보다는 金昌業, 洪大容, 朴趾源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 인용하면서 가능한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저자 자신의 개인적인 감회, 정서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일면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를 견지하려면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다른 연행록과의 비교를 통한 『燕轅直指』의 내용에 대한 정치한 연구와 그 문학사적 위상에 대한 자리매김은 後稿를 준비하고자 한다.